

“전남 유도 활성화 기여하겠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내의 활동을 펼쳐 전남 유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희중 전라남도유도회 심판위원장(47)이 최근 유도 국제심판 자격증을 획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2018 아시아 유소년·청소년 챔피언십대회를 겸해 진행된 세계유도연맹(IJF) 대륙별 국제심판 시험과 아시아 유도연맹(JUA) 심판강습회를 통해 국제심판 시험에 합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제심판 자격 취득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유도대회는 물론 향후 올림픽 무대에 도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국제심판 자격 취득은 쉽지 않았다. 국제유도심판 자격시험은 대한유도회에서 매년 국내 800여 명의 1급 심판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보유한 심판 중 1년에 2명만 선정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국제심판 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경쟁이 훨씬 더 까다롭고 치열한 셈이다.

치열한 국내·외 경쟁 뚫고 국제심판 자격 취득

자카르타AG부터 활동... 인터내셔널 자격증 도전

■ 김희중 전라남도유도회 심판위원장

또한 시험 과정도 쉽지 않다.

국제심판 자격은 1차 국제용어 유도 기술시험, 2차 영어 구술시험, 3차 심판 실기시험에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틀간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심판자격을 얻었고 앞으로 아시아권 대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순천효천고, 용인대학교, 여주시청에서 선수생활을 해왔으며 은퇴 후에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도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번 국제심판 자격 취득 결실을 맺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국내 1급 심판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까지 국가대표 선발전 및 각종 전국 유도대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유도 국제심판 자격증은 출신 대륙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와 공인된 대회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컨티넨탈과 출신 대륙과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 심판을 볼 수 있는 인터내셔널로 나뉘어 있으며, 엄격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격 취득으로 인터내셔널 자격증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오는 8월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유도경기에서 국제심판으로서 첫 발걸음을 떼게 된다”며 “앞으로 모든 국제유도대회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인터내셔널 국제심판’ 자격증 획득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 완도경찰서 교통안전물품 전달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최근 경찰청의 ‘보행자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광주·전남지역교통약자배려 캠페인 추진과 관련해 완도경찰서(서장 김선권)에 교통안전물품을 전달했다.



전남대 최근창 학생, 정보기술·디지털 학술대회 금상

전남대학교 도시재난재해대응스마트시스템 연구센터(ITRC) 참여연구원 최근창 학생(전자컴퓨터공학부 4년)이 최근 조선대에서 열린 2018년 한국정보기술학회·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광산구 ‘소화성가정’ 찾아 재능기부

공원녹지과 ‘그린라이트’ 회원, 가지치기 등 구슬땀

광주 광산구 공원녹지과 학습동아리 ‘그린라이트’ 회원 등 30여명은 최근 삼도동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성가정을 찾아 가지치기, 풀베기, 울타리칠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원·녹지·산림 시책과 실무를 공부하는 그린라이트 회원들이 소화성가정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월.

복지대나 가로수에서 나오는 나뭇가지 등을 땀감으로 소화성가정에 기부한 것을 인연으로, 회원들은 시설 안팎을 단장하는 일에 자신들의 재능이 필요함을 알

게 됐고, 동아리 회의를 거쳐 이날 봉사활동에 나섰다.

소화성가정 문성월 대표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린라이트 회장 심재정 공원녹지과장은 “이론으로만 알던 일을 오늘 실제 경험해본 동아리 회원들도 많았다”며 “배움과 실천, 일과 봉사가 어우러진 보람 있는 활동을 앞으로도 꼭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신한은행, 광주문화재단에 소외계층 기부금

신한은행의 광주문화재단 기부금 전달식이 최근 빛고을시민문화관 문화보듬 10000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한은행 광주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 차성중 단장과 광주지점 박승진 지점장, 홍영민 부지점장, 광주문화재단 김윤기 대표이사과 김종률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는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매월 급여에서 1만 원 기부금을 통해 의료, 문화예술, 장애, 아동 교육 분야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나눔 프로젝트로, 모인 기금은 해피빈을 통해 배분한다. 지금까지 총 1,101개의 단체에 약 68

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만원이 지닌 가치를 나눔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문화로 만만(滿滿)한 광주’ 프로젝트는 ‘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의 ‘문화예술’ 분야로 선정되어 기금 900만원을 배분받았다.

기부금은 문화소외계층, 입양가족, 청소년이 자유롭게 꿈꾸는 세상을 위한 문화예술 초청 및 참여프로그램에 사용되며, 현재 신한은행 기업 기부금 900만원과 네트즌 기부금 19만3,900원이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모금됐다. 목표 금액은 총 950만원이며 오는 30일까지 모금이 진행된다. /이보람 기자



조선대 SW융합교육원, 고교-대학연계 전공체험

조선대 SW융합교육원은 최근 전라남·북도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18년 고교-대학연계 전공체험을 실시했다.

“2018년 고교-대학연계 전공체험 프로그램은 광주, 전남·북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 학생들이 개별로 희망하는 학과(부)를 선택해 전공을 체험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진로탐색 프

로그램이다. 행사 기간에 SW융합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공학과 학과체험은 14개 고교, 289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2019학년도 입학전형을 안내하는 입학설명회를 비롯하여 교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 각 학과를 방문하여 전공 안내 및 전공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상 시상식 개최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현)이 제 73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교육청 오승현 부교육감, 광주시 황인숙 복지건강국장, 심평원 윤순희 광주지원장·정성수 심사위원장,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 이숙자 광주시간호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창현 회장은 “6월 9일 법정기념일인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치과의사와 시민이 뜻을 합쳐 한층 성숙된 구강보건의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치아사랑에 관한 저변

확대와 구강보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광주광역시 치과의사들의 노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는 ▲광주시장상 김치어르신 김용대, 구강보건유공자 정치과, 지국섭치과, 선이교은 치과, 광주웰치과, 뉴유연합 치과,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차경미 ▲광주시교육감상 윤곡초등학교 류양순 보건교사 ▲광주시치과의사회장상 조선대치대 장승비, 전남대치대 최경석, 광주보건대 김지아, 전남과대학 김지우, 서영대 정찬우, 송원대 안수진, 광주주여대 이정은, 호남대 이민주 등이다. /김용현 기자



호남대 대학원 최경자·나양임씨 한국음식관광박람회 대상 수상

호남대 사회융합대학원 외식조리관리학과 석사 1학기에 재학중인 최경자·나양임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8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18학년에 조리학과를 졸업한 최경자씨와 나양임씨는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2018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학술활동과 고조리서 자료 발굴을 통해 된장 솔방

울정, 꽃모양 삼색매자, 간장이 들어간 과일 초콜릿 등 전통 장류를 남도 디지털 한상차림으로 현대화해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출품한 작품은 문헌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옛 음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고 이를 통해 남도음식을 전 세계인들이 품이 있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애란 기자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홍보지원

홍보물·서비스 쿠폰 배부·SNS 인증 포토존 설치

광주 북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남대 도서관 별관(백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홍보

이벤트 홍보활동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장소인 전남대 도서관 앞에서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북구 사회적경제연합회,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사회적경제 개념 및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리플릿과 물품을 배부하는 등 홍보·전시부스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대학생과 주민들이 흥미롭게 사회적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등 SNS 인증 포토존 이벤트를 통해 휴대폰 보조배터리, 커피 및 음료 쿠폰 및 증명사진 촬영권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쿠폰을 제공하는 등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북구에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236개가 운영되고 있다. /김종찬 기자